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July, August 2010 Edition

뜨겁게 살아 숨쉬는 젊음의 신앙 고백

동남부 청년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남부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지도신부 안정호, 회장 이영숙)가 주최하는 제 4차 청년 성령세미나 (영어권)가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지아 카니어스에 있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개최되었다. 김두진 신부 와 최베드로 북미주 사제 협의회 사무국장및 동남부 청년 봉

사회의 지도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동남부 5 개주에서 모인 47명 청년들이 ‘성령 안의 삶’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그룹 별 토의 및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성령 안에서 더 뜨겁게 살아있는 신앙 생활과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시간이되었다.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동북부 성령 대회

6 개 주에서 3 천 여명이 한 자리에



올해 15년 째를 맞는 동북부 성령대회가 17명의 사제와 30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7일 18일에 걸쳐 로디 소재 펠리시안 칼리지에서 열렸다. 동북부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회장: 최혜숙 지도신부: 이경)는 1992년

창립되어 95년 부터 매년 성령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성령대회에는 뉴욕, 델라웨어, 메사추세츠 등에 소재한 동부 30여개 한인 본당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모여든 신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2010 Seminar Schedule

| 일자 | 행사 | 주최 | 문의 |
|--------------------|---------------------------------|---------|--------------------|
| 10/22 - 24 | 포틀랜드 성령 안의 삶 세미나 | 포틀랜드 본당 | 기도회장 503-491-1251 |
| 10/28 - 31 | 제 53 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 동북부 봉사회 | 이 데레사 201-947-4717 |
| 10/30 - 31 | NSC Leaders Conference | NSC | 이 은경 253-223-8775 |
| 11/4 - 7 | 캐나다 오타와 성령 안의 삶 세미나 | 오타와 본당 | 본당 613-237-5528 |
| 10/30 -31 | 동남부 지역 성령 대회 | 동남부 봉사회 | 이영숙 404-429-7659 |
| 1/15 2011 | Committee of 7 meeting at Tampa | NSC | 이 은경 253-223-8775 |
| 2/21 - 25 2011년 | 11 차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 | KSC | 이은경 253-223-8775 |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커다란 웅덩이 속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곳곳이 상처투성이인 나에게

“너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최 미숙 헬레나, 샬롯 본당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나는 왜 신앙조차도 성인이 되어서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랬더라면 더 열심히 텐데 하고요. 어려서는 성당 일에만 너무 열심히 엄마가 싫었습니다. 너무 대쪽 같은 엄마도 싫었습니다. 남의 엄마처럼 자식이라면 옳고 그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만 해주는 엄마가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잘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귀 뒤쪽 뇌 가까운 곳에서 종양이 자라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병명이 어카우스틱 뉴로마 라고 듣도 보도 못한 병입니다. 자기는 1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의사가 경과를 두고 보자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으면서 이제는 정말 수술이 필요할 때라서 얘기 한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안면 마비와 함께 청각 장애인은 물론 생명도 위험하다고 수술도 워낙 어려운 수술이라 수술이 잘못되면 생명엔 이상이 없지만 청각손실과 안면 마비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침도 질질 흘리면서 평생을 살수도 있습니다. 아.. 어떡하나. 남편이 만약에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며..

1년 동안 맘고생하며 기다렸을 남편은 하나도 고맙지도 않았습니다.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라 수술만 완전히 성공하면 된다는 소리도 하나도 안 고마웠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노랗고 세상 끝에 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크기의 두려움이었을까요...

깊고 깊은 두려움 속에서 수술 날이 되었습니다. 6시간이 걸리는 대수술 이었죠. 그 6시간이 저에게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커다란 웅덩이 속 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의식적인 묵주기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던 웨이팅 룸에서 혼자 울며 불며 6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멀쩡하게 살려달라고...나 혼자는 절대로 못산다고..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약기운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보는 제 마음엔 또 다시 두려움으로 가득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겁이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남편을 간호하고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때가 아침 7시 30분경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사람이었지요. 여전히 미래의 대한 확신이 없음에 두려워 하며...

그 때 갑자기 하늘에서 제 귀청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들렸습니다.

“헬레나야 너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깜짝 놀래서 주위를 둘러 봤죠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바쁘게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회복을 하고 편안한 현실로 돌아온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었지만,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랐고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철부지 신앙이었습니다.

조금 더 주님이 알고 싶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세미나 중, 아침 산책 시간에 목주기도를 하며 산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 속에서 한 줄기 햇살 속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곳곳이 상처투성이에 피까지 흘리는 작은 들짐승 한마리가 보였습니다. 꼭 영화의 한 장면 처럼...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강한 척 똑똑한 척 온갖 잘난 척은 다하던 나는 결국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또 다시 상처 받기 싫어 안간힘을 쓰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작은 들짐승이었습니다. 산책로에서 본 저의 모습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영영 소리 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불쌍해서.. 그리고 옆에서 같이 불쌍해 가슴 아파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고마워서.. 이렇게 철없는 저를 기다려주신 우리 예수님이 고마워서...

세미나 내내 신부님의 용기 있고 살아있는 강의 속에서, 미사 중에, 성가 찬미 중에, 치유시간에, 또 다른 자매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욕심과 못남이 또 다시 내가 사랑하는 딸과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나의 상처가 왜 돌고 도는 사슬인지 예수님은 제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저기 사차원적인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내적인 만남은 저를 치유해줍니다. 그 치유 속에서 저의 내적 성숙이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내 이기심에서 빠져나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 욕심과 무지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또 꼬꾸라지겠지요. 저의 자만에 빠져 허우적거리겠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든든한 백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엄마께도 감사합니다. 항상 “내가 깨달은 우리 주님을 너도 깨달아야 할텐데..” 하시며 목주기도를 하루 종일 하시던 엄마께도 감사합니다. 대쪽같이 살아주셔서..

주님을 열심히 믿으시며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지금도 천상에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실 우리 엄마...

저는 우리 엄마 발바닥만큼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한맘 성당

7월 12-15일 Queen of Apostles 피정첸타에서의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후, 7월 16일 본당에서 열린 은혜의 밤에 많은 신자들이 참석, 찬미하고 있다.

